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2)

- 제주, 전남·광주,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

남 송 우*

차 례

- | | |
|------------------------------|---------------------|
| I. 여는 말 | III. 지역문학 연구 방향 모색 |
| II. 지역문학 활성화 논의에서 지역문학 연구논의로 | IV.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
| | V. 남는 말 |

I. 여는 말

지역분권과 함께 일기 시작한 지역연구¹⁾에 대한 관심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지역학의 한 내용으로서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전무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기도 전에 지역문학에 대한 자각과 활성화에 대한 논의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지방자치 이후 지역분권이 현실화 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지역 연구를 위한 지역학 관련 연구소들이 세워졌다. 예를 들면, 서울학 연구소, 인천학 연구소, 충북학 연구소, 강원학 연구소, 신라대부산학 연구소, 부산발전연구소 부산학 연구센터 등이다.

근에 논의되기 시작하는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은 이전의 인식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에서 그 논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새롭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학 연구 차원에서 일기 시작한 지역문학 연구는 그 열기만큼 지역문학 연구 방법론이 구체화 되고, 그 방법론에 입각한 체계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지역문학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 지역문학 연구의 흐름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현황은 어떠한가, 그 연구의 한계나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학 연구의 온당한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은 지금까지 논의된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글들과 실제 각 지역에서 다른 지역문학에 대한 저술들이 일차적인 자료이다. 이 대상들을 통해 지역문학연구 논의가 그 지역의 정체성²⁾을 어

2) 한 지역의 정체성을 몇 마디로 규정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역학 연구소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이 무엇이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 지역의 정체성이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바탕 위에 늘 새롭게 형성되어져 가는 실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체성은 심리적인 것이면서 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며 동시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산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정체성은 주체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동일성과 연대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규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각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중층적으로 복합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다양한 그 지역 특유의 뚜렷한 현상들이 문학작품 속에서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포착하는 작업이 지역문학연구가 일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를 논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한 항목으로 지역 정체성을 내세운다. 이러한 지역정체성의 확인은 그 지역의 지역성을 드러내는 특수성으로 지역문학을 탈지역화하여 보편성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룬다.

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문학론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는 지역성의 실현과 그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즉 지역문학논의의 바탕도 지역성이며, 그 궁극적인 지향점도 지역성을 통한 보편성의 실현이기에 지역성이란 잣대를 중심으로 각 지역문학론의 내용들을 살피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에서 창출된 모든 문학작품과 그 논의들을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그 범위나 범주가 너무 넓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우선 현대문학에 한정했으며, 지역도 몇 지역으로 제한을 했다. 지역을 몇 지역으로 나누면서 지역문학권을 어떻게 설정하여 논의할 것이냐가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 제주, 전남·광주, 부산·경남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전통적으로 영남과 호남의 문화적 바탕은 변별되는 요소가 있기에 대별을 하면서, 이를 좀 더 구체적인 지역인 전남·광주지역과 부산·경남지역으로 구체화 했다. 제주지역은 영남과 호남문화권과는 다른 지역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따로 한 지역으로 설정했다³⁾.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구분은 문학 속에서 논의되는 그 지역성을 찾아 해명해 봄으로써 지역문학의 변별성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전제한 결과이다.

3) 조동일은 「지방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지방문학사 서술의 단위가 되는 지방은 그 범위를 미리 한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호남문학, 영남문학, 같은 대단위, 전남문학, 대구문학 같은 중단위, 고창문학, 통영문학 같은 소단위,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모두 의미가 있다. 서울도 한 지방이고, 서울의 안국동이나 가회동도 한 지역이다. 지역을 지리산 일대, 한강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서술 단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지자체 이후 문화권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단위보다는 중단위에서 지역문학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6쪽 참조

Ⅱ. 지역문학 활성화 논의에서 지역문학 연구논의로

한국 문학관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가 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것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대초 정기적으로 발행되던 『창비』, 『문지』 등 많은 문예지들이 폐간되고 난 뒤, 각 지역에서 발행되기 시작한 무크지는 문학 정기간행물이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문학적 활동의 중심 매체로 자리를 잡아갔다. 특히 종합무크지와 동인지는 당시의 문학 지형을 새롭게 해가는 역할을 감당했다. 서울지역에는 『실천문학』, 『우리 세대의 문학』, 『언어의 세계』 등이 대전이란 지연에 근거를 둔 『삶의 문학』, 부산지역에서 발행된 『지평』, 광주의 『오월시』 등이 대표적으로 운동성을 지닌 문학매체였다.

그런데 서울지역에서 발행된 무크지들은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무크지들은 서울 중심의 문화집중 혹은 문학중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지역문화 혹은 문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삶의 문학』은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한국의 고급문화를 부정하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엔 그 나름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봄으로써 문화향유의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향유의 보편성 추구를 넘어서 서울과 지방을 대립적 시각에 두고, 지역문학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는 『지평』을 통해서이다.

중앙/지방, 서울/지방의 실제공간을 문학공간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은 한국문학의 자기정립에 가장 저해되는 요인이다. 중앙=서울, 변두리=지방이라는 실제공간에 대한 이해방식의 이면에는 한국문화와 현실의 구조적 모순이 숨겨져 있다. 모든 현실적인 여건의 수혜 대상인 서울지방에서의 문화행위는 현실적 불평등에 의해서 다른 지방에서의 문화행위를 저해하며 억압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의해서, 서울문학=한국문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이 같은 등식의 성립이 한국문학의 자기정

림에 가장 큰 방해물이 되어온 것이다.⁴⁾

이러한 문제제기는 충격적이라 할만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새롭게 일기 시작한 이런 지역문학 운동의 논리는 일면 타당성을 지니지만, 그것을 한국문학의 자기정립에 가장 큰 방해물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한 문제제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문학의 자기정립은 문학의 문제이지, 문학활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 그래서 당시의 지방문학운동 논리는 종합적인 시각이 결여된 지방주의로, 대안없는 반대논리로, 지방주의의 논리에 부응하는 만큼의 지역문학 운동에 대한 실태분석, 논리의 심화,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점검과 진단이 결여되어 있는 허구⁶⁾로 비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초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방과 중앙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은 거처가야 할 과정 중의 하나였다.

지역문학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의 논의는 미미하고, 단편적이었지만 80년대초의 지방문학논의는 집단적 운동성을 지녔기에 그만큼 그 파급성은 컸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의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는 서울이 지닌 문학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등한 지역문학의 현실에 대한 극복의지의 발현이 더 강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 한계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구체화된 1990년대로 넘어서면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도 조금은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단순한 지역주의의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문학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의 일단을 『문학사상』(1990, 5월호)의 ‘지역문학’에 대한 특집에서 읽어낼 수 있다. 이 특집에

4) 무크지 『지평·2』/『문학과 삶의 지평을 위하여』, 1984, 머리말

5) 성민엽, 「문학종합무크의 현황」, 『지성과 실천』, 문학과 지성사, 1985, 76-77쪽.

6) 구모룡, 「민족문학논의에 있어서의 지역모순의 문제」 『구체적 삶과 형성기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1988, 64쪽.

는 각 지역에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들의 지역문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①지역자치의 실현과 함께 지역문학을 제대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문인들의 매체를 기관지 성격의 문예지가 아닌 순수 상업문예지를 만들어 발표지면을 정기화해야 한다는 점 ②매체에 실리는 작품의 내용이 그 지역성에 바탕을 두면서 민족적인 보편성을 아울러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지역 문인들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질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⁷⁾.

7) 『문학사상』에 실린 논자들의 논의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오양호는 각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문예지 26종을 분석하여, 각 문예지들이 내보이는 작품들의 현실인식과 역사의식이란 측면에서 치열한 문학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지역의 특색 즉 지방색을 드러내는 특징을 통해 민족적인 것을 구현해 가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민족적이란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아마추어로서 대하는 자질을 근본적으로 그치고 문학을 치열한 삶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태수는 대구지역문학을 다루면서, 대구지역문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문학저널리즘을 가져야 하며, 이것의 실현이 지역문학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박양호는 지방적인 것의 추구가 오히려 보편성이 상실로 이어지면 곤란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써 내는 작품의 질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중요시 한다.

나태주는 지역문학의 미래를 위해 우선 요구되는 사항은 글 쓰는 사람들의 자아인식이요, 거기에 따른 자기성찰과 각성을 중시하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문학단체의 기관지가 아닌 순수문예지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계영도 대전 충남지역도 지방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는 동인지 시대를 결별하고, 전국을 판매망으로 하는 상업용 문예지의 정착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모룡은 매체의 확보와 함께 지역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지역문학운동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하여 경계가 없는 탈중심의 세계를 삶의 미래적 내용으로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순태는 지역문화의 번성은 자칫 유실되려는 우리 사회의 주체문화를 되찾는 길로 보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출판의 활성화, 지면의 확보, 지역작가의 치열한 작가의식 고양 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서준섭은 강원지역의 문학을 말하면서, 지역문학이 지닌 시야의 협소함, 문학에 대한 보수적 태도, 편협한 지방주의, 사회적 상상력의 결여 등을 지역문학이 극

그런데 이러한 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지역문학이 지닌 현재의 문제들을 문학활동 즉 창작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논의를 시작한 저널리즘적 접근이란 점에서 지방문학 연구의 차원으로는 다가서지 못했다. 1995년 지방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은 다시 현실화된다. 『실천문학』(1995, 겨울호)에서 「지방자치시대, 지역문학을 다시 본다」는 특집을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차원으로 지역문학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 특집에서 최원식은 「지방을 보는 눈」을 통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함께 그 문학적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지방의 논리에 의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이의 문학적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각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지구적 시야로 지역을 보고 지역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상호침투적 시각을 견지할 때, 민족문학으로서 지역문학의 문제가 옹계 처리될 수 있다⁸⁾고 본다. 그가 지역문학을 보는 시각은 철저히 민족문학이란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역문학론이 가야 할 궁극의 지점은 전지구적 사고와 배타되지 않는 지방주의 논리로 무장된 작가들의 구체적 작품을 통해 도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한국문학 속에서 김동환의 「국경의 밤」을 함경도, 김소월을 평안도, 채만식을 전라도, 김유정을 강원도의 지역성을 토대로 한 작가 시인으로 분류한 것이나, 김정환의 낙동강, 신동엽의 금강, 신경림의 남한강, 박경리의 악양, 김지하의 남도, 황석영의 황해도, 이문구의 관촌, 현기영의 제주도를 떠올린 것도 이런 연유다.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을 통해 건져올리는 작품의 질이 지역문학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최원식의 지역문학론은 1990년대 초에 논의된 지역문학론의

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문학사상』 1990년 5월호, 89-130쪽 참조.

8)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실천문학』, 1995, 겨울호, 225쪽.

선상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으나, 전지구적 시야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지구를 보는 상호침투적 시각의 견지는 기존의 지역에서 민족문학으로, 민족문학에서 세계문학으로 나아가는 단선적 시각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틀이라고 생각한다.

최원식의 지역문학론과는 좀 다른 입장에서 이강은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현실적 긴장」에서 지역문학론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지역문학론에 게재되기 쉬운 이데올로기의 측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⁹⁾.

이강은의 지역문학론에서 유의할 점은 지역문화라는 차원에서 지역문학론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문화자치라는 이데올로기로 떠오르고 있는 정책적, 행정적 문화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지역문화운동을 흡수해 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라는 정치적 논리에만 기대어 지역문화 나아가 지역문학론이 전개된다면, 온당한 지역문학론의 방향성을 찾아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은 지역문학을 실천하면서, 늘 의식해야 할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이강은의 지역문학론도 운동의 당위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지역문학의 개념과 그 의미는 문학운동의 보편적 과제의 실현 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하고, 그

9) 지자체의 실행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부각되고 있는 지역문화와 지역문학운동은 우리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형태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문학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편협한 인식과 실천을 경계하기 위해 그 개념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의 지방자치와 더불어 문화자치라는 이데올로기도 떠오르고 있는 정책적, 행정적 문화논리가 무비판적으로 지역문화 운동을 흡수해 낼 우려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운동으로서의 지역문학 운동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모순과 조건들이 매우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지역문학 활동을 통해 그 조건과 모순을 극복하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그 개념적 정립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그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1995, 겨울호, 229쪽.

과제의 실현과정에서 자신의 독자성을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¹⁰⁾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논의는 지역문학에서 늘 제기되어 온 지역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편성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점검해본 최원식이나 이강은의 지역문학론 역시,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향성의 논의였지, 지역문학을 연구 차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지역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논의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Ⅲ. 지역문학 연구 방향 모색

지역문학론 논의가 지역문학 활성화를 위한 창작적 측면이 아니고, 연구의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박태일의 「지역문학연구의 방향」(『지역문학 연구』제2호, 1998)에서이다. 그는 1997년부터 『지역문학 연구』를 펴내면서¹¹⁾, 지역문학 연구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실천하기¹²⁾

10) 다시 말하면 지역문학의 개념과 그 의미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독자적 운동 단위로 설정될 현실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문학운동의 보편적 과제의 실현 속에서 위치지워져야 하고, 그 과제의 실현과정에서 점차로 자신의 독자성을 벗어날 수 있을 때에만 진정한 지역문학이 될 수 있다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강은, 앞의 글, 237쪽.

11) 『지역문학연구』는 1997년 여름에 창간호를 펴냈으며, 1998년 3월에 2호, 1998년 9월에 3호, 1999년 봄에 4호가 나왔으며, 2004년 11월까지 10호를 펴냈다. 이 때에 발표된 핵심적인 내용은 경남지역 문인들에 대한 연구와 비평, 경남지역문학 자료발굴, 경남지역문인 작품에 대한 서평, 번역 등이 실려 있다. 그 범위를 경남에서 부산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12) 그 실천의 결과물 중의 하나가 『경남·부산지역문학연구1』(청동거울, 2004)이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지역문학의 전통을 다룬 것으로 「경남지역계급주의 시문학 연구」, 「근대통영지역 시문학의 전통」, 둘째는 경남·부산지역의 부왜문학을 다루고 있는데, 「경남 지역문학과 부왜활동」, 「김정환 회곡 「인가지」 연구」, 「이원수의 부왜문학연구」, 세째는 이주홍과 그의 시

시작했다. 이의 온당한 실현을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이 필요했기에 「지역문학연구의 방향」이란 글¹³⁾에서 이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학연구의 방향」은 본격 지역문학 연구방법론이라기 보다는 지역문학 연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제안하고 있는 선이다. 연구의 대상, 주체, 방법, 그리고 목표로 나누어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이 글은 본격 지역문학연구 방법론은 아니지만, 그 방법론의 모색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첫째 방향은 기초문헌의 간수와 갈무리이다. 지역문학 연구가 바람직한 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바탕이 되는 대상, 곧 기초문헌 자료를 갖추고 간추릴 뿐 아니라, 그것을 갈무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⁴⁾는 것이다. 문학연구에서 서지적 접근은 모든 연구의 출발이란 점에서, 이러한 제안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지역문학의 연구 텍스트가 되는 문학잡지나 동인지, 작품집 등이 제대로 간수 정리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문학 연구는 그 시작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러므로 연구의 시작을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의 정리가 급선무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는 연구주체의 확충과 협력이다¹⁵⁾. 지역문학 전문연구가나 연구단체, 전공자와 같은 연구주체를 넓히고 키워나가는 일이 주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문학 연구 주체 가운데서 가장 앞서 그 일을 끝고 나가며 전공자를 길러내야 할 곳이 지역대학에 마련된 국어국문학과나 관련 연구기관이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주홍의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이주홍론 -교육자로서 걸었던 길」, 「향파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 넷째는 지역문학의 속살을 다루고 있는데, 「광복열사 박차정의 삶과 문학」, 「동래온천과 노자영의 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13) 이 글은 『지역문학연구』2호(1998, 3)에 실렸으며, 그 뒤에 나온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청동거울, 2004)에 재수록 되어있다.

14) 박태일,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 『지역문학 연구』2호, 1998, 118쪽.

15) 박태일, 같은 책, 121쪽.

관심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땅한 힘을 갖춘 대학의 전문 연구자들이 힘껏 지역문학 연구에 나서 그 높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전공자끼리, 또는 대학끼리 그 과정과 성과를 나누고 이어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풀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⁶⁾. 대학 스스로 이 일을 끌어안기 힘들다면, 뜻있는 지역단체가 뒤를 밀어주거나 떠맡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주체의 확충이란 점은 연구의 주체가 있어야 연구 자체가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연구대상 기초문헌의 간수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뒷받침의 문제는 연구의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연구 토대를 위해 필요한 물질적 토대라는 점에서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셋째는 아마추어리즘과 정실주의의 극복을 문제삼고 있다. 우선 아마추어 수준에 머문 글들이 거리낌 없이 나돌고, 그에 따라 지역문학 연구가 그 질에 있어서 하향 평준화로 치닫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지역문학 연구가 지역문화에 이바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연고와 지역우월을 앞세운 질 낮은 정실주의를 물리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¹⁷⁾. 이러한 문제는 지역문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이다.

넷째는 주인의식과 지역통합¹⁸⁾ 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문학 연구자들은 모름지기 결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장소와 사건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꾸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손해와 공력을 즐거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학 연구는 지역을 하나의 문화공동체로 묶어내기 위한 연구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역문학 연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학연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16) 박태일, 같은 책, 123쪽.

17) 박태일, 같은 책, 125쪽.

18) 박태일, 같은 책, 127쪽.

나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제안들이다. 기초문헌의 간수와 갈무리는 연구 대상 텍스트의 구비라는 점에서, 연구주체의 확충과 협력은 연구자의 확보라는 점에서, 각각 그 의미가 있다. 즉 연구주체와 연구 대상은 연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연구자의 의식과 역량의 문제를 제안하고 있어, 지역문학연구 방법론의 모색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박태일도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론이 아니고, 지역문학연구의 방향이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박태일의 문제제기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지역문학론이 양영길의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¹⁹⁾이다. 지역문학 연구의 총체적 작업의 하나가 지역문학사 서술이란 점에서,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에 대한 모색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문학 연구 방법론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으나, 이는 함께 고구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학사 서술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가 지역문학사의 인식방법이며, 둘째가 지역문학사의 서술 대상이다. 지역문학사의 인식방법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지역문학사는 시대론적 발전론적 인식에 함몰되어버린 한국문학사상을 공간론적 인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학사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한 방법²⁰⁾이란 주장이다. 공간론적 인식의 바탕은 지역의 특수성에 있는데, 이러한 인식전환을 해야 새로운 지역문학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학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주제 지도를 만드는 일을 제안한다. 폭넓게 지역사이거나, 아니면 그 하위개념으로 수난사이거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지역정서의 생태, 가치체계, 세계관, 세계인식 방법, 질서원리, 정념 등의 여러 갈래와 그 변화추이를

19) 양영길,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20) 양영길, 같은 책, 46쪽.

추적하여 그 변동원리와 그 지역의 구심성과 원심성을 밝혀낼 수 있어야 지역문학사 상(像)을 인식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²¹⁾는 것이다. 이는 바로 지역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찾아내어 지역 독자적인 가치체계를 형성하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문학사 인식방법에 있어, 중요한 것은 특정한 시공간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통한 보편화의 방식을 추구하는 개성기술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특수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가는²²⁾ 일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가 논하고 있는 서술 대상은 지역, 작가, 독자, 작품의 범위이다. 그가 주장하는 지역문학사 서술에서 말하는 지역은 인위적·행정적 구획이 아닌 자연적·생태적 구분에 의해야 한다고 본다. 생태적 구분은 행정적 편의에 의한 구획보다 안정된 구심력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가에 대한 범위는 주소지와 출신지 중심으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규정하거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규정하기는 힘들다²³⁾고 본다. 출타인이나 도래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남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작가를 가르는 모든 기준은 획일화할 수 없으며, 언어와 정서에 관련되는 문제로 귀결된다²⁴⁾는 입장을 보인다.

지역문학사의 한 축을 이루는 독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한 항목이다. 이 문제를 양영길은 작가의 범위와 일치하면 1차적 독자로, 그렇지 않으면 2차적 독자로 유연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1차적 독자를 중요시 하고 2차적 독자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지역문학사의 인식차원에서는 오히려 2차적 독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언어를 토대로 씌어진 작품의 경우, 1

21) 양영길, 같은 책, 48쪽.

22) 양영길, 같은 책, 49쪽.

23) 양영길, 같은 책, 51쪽.

24) 양영길, 같은 책, 53쪽.

차적 독자에게는 읽힐 수 있어도 2차적 독자나 1차적 독자의 후손들에게는 고전문학을 읽듯이 주석에 의존해서 읽힌다면 이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독자의 문제는 지역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이해를 바탕으로 재생산에 관여하기 때문에 독자에 대한 범주와 연구가 필요하다²⁵⁾고 본다.

기존의 한국문학사 서술에서는 문학사의 한 축을 이루는 독자를 고려하지 못했기에 지역문학사에서는 독자를 고려하여 기존의 문학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는 문학담당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산인 환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학사의 대상 텍스트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양영길은 그 대상을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나누어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자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학이며, 2차 자료는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한다. 첫째는 지역문학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그 지역작가의 작품, 둘째는 그 지역 작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작가의 작품, 셋째는 외지인의 그 지역과 관련되는 작품 등으로 나누어 보고²⁶⁾ 있다. 그러나 가장 우선시되는 작품은 1차 자료이다. 그런데 그 1차 자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양영길은 그 기준의 하나로 지역공동체 삶의 총체성이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 지역 공동체의 기원, 성장, 비대, 분화, 분열, 해체 재구성 등과 관련시켜 중층적·다원적 구조 위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층적·다원적 구조 속에서 논의가 가능한 작품 속에는 그 지역 정서의 심층과 문제들이 숨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그 지역의 표층을 흐르는 역사와 복류하는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²⁷⁾는 것이다.

25) 양영길, 같은 책, 54쪽.

26) 양영길, 같은 책, 같은 쪽.

27) 양영길, 같은 책, 55쪽.

이러한 조건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학은 나름의 갈래를 세울 수 있다고 보고, 그는 몇 개의 갈래를 세워보인다. 지역의 사건이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학,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 사회의 분화와 변화에 갈등하는 문학, 자연재해를 이겨나가는 문학 등으로 그 지역 정서와 현실적 삶을 바탕으로 갈래체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²⁸⁾고 예시한다.

이상과 같이 양영길의 제시하고 있는 지역문학사 서술 방법론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만들어진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원론적 차원에서 제시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는 지역문학사 서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라기보다는 방법론으로 다듬어 나가야 할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중앙문단 중심의 문학사를 벗어나는 지역문학사 서술을 위한 나름의 틀을 개발해보려는 의욕은 살만하다.

지역문학 연구방법 중 지역문학사 논의는 지방문학의 연구를 사적으로 정리해서 내보인 조동일의 『지방문학사』(서울대출판부, 2003)에서 다시 이어진다.

그는 문학연구의 단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나누고, 하위문학에는 소수민족문학·지방문학·특수집단문학으로 분류하고는, 한국에서는 지방문학이 긴요하다²⁹⁾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지방문학사를 쓰기 위해 선례가 되는 외국 나라들의 경우를 개관하고는 한국에서 지방문학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자료를 살피고 있다. 제주, 영남, 호남, 중부지방, 서울로 분류해서 각 지역에서 그 동안 산출한 지역문학에 관한 연구서들을 서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각각의 연구서들이 지닌 한계나 특징의 논의를 통해 지역문학의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은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완결된 저술이나 본격적인 작업이 아니라, 지역문학연구 작업을 위한 자료를 제

28) 양영길, 같은 책, 56쪽.

29)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쪽.

공하는 편람의³⁰⁾ 수준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시고로서 지방문학사를 실제로 서술할 때 특히 중요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몇 개 선택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탐라국 건국서사시를 통해 제주문학사의 연원을 찾는 것³¹⁾, 인물전설에 나타난 상하관계의 역전을 통해 영남문학사의 특징을 찾는 것³²⁾, 남성시가의 여성화자를 통해 호남문학사의 맥락을 찾는 것³³⁾, 조식의 시문에 나타난 지리산의 의미를 통해 지리산문학사의 영역을 찾는 것³⁴⁾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고를 바탕으로 그는 「지방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³⁵⁾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그가 이미 쓴 문학사에서 보여준 체계적인 방법론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단편적인 방향성의 제안 수준이다.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지방문학사를 통사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단면사로 쓸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자기 고장이 외부의 간섭 때문에 잃고 있는 독자적인 특징을 지켜,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치를 확대하거나 독립을 이룩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방문학사를 통사로 서술해야 하지만, 미리 제시되어 있지 않은 특성을 찾아나갈 때에는 통사서술을 버리고 단면사를 연구방법으로 삼아야 한다³⁶⁾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어떤 문학적 사안이 통사

30) 이 책은 완결된 저술이 아니다. 다음에 해야 하는 더욱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편람이다.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서술의 균형도 갖추지 못했다.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미완의 발상을 이것저것 말하는 데 그친다. 내 자신이 완결된 작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구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참고할 필요가 있는 책을 되도록 광범위하게 들고자 한다. 아직 구하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아 목록이 영성해도 하는 수 없다. 앞에 놓고도 미처 읽지 못한 것도 빠트리지 않고 소개한다.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출판사, 2003, 9쪽.

31) 조동일, 같은 책, 115쪽.

32) 조동일, 같은 책, 154쪽.

33) 조동일, 같은 책, 165쪽.

34) 조동일, 같은 책, 184쪽.

35) 조동일, 같은 책, 201쪽.

36) 조동일, 「지방문학사 어떻게 쓸 것인가」, 『지방문학사』, 서울대출판부, 2003, 203

로 혹은 단면사로 취사선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잣대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그 문학적 사안이 달라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아직까지 지역문학사가 통사든 단면사든 제대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탓도 있다. 통사냐, 단면사냐 하는 문제는 지방문학사의 전체적 체계를 다루는 문제라면, 서술단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조동일은 지방문학사의 서술단위가 되는 지방은 그 범위를 미리 한정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서 호남문학, 영남문학 같은 대단위, 전남문학, 대구문학 같은 중단위, 고창문학, 통영문학 같은 소단위 그보다 더 작은 단위가 모두 의미가 있다³⁷⁾고 본다. 이러한 단위 설정의 방식은 그 지역에서 생성된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그 단위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각 지방에서 산출되는 지역문학의 텍스트들이 다양하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에 이러한 열린 서술단위의 설정은 의미는 있지만, 실제 지역문학사의 서술 과정에서는 이러한 단위들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어떻게 통일성을 지녀야 할 것인지 하는 과제를 지닌다.

문학사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전체 체계도, 서술단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서술 대상이 되는 작가를 어떻게 다루는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조동일은 이 문제에 대해 한 작가와 그 고장의 관계를 다루는 작업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문학의 생성과 변천을 그 현장의 사회사와 관련시켜 다각도로 다루는 것으로, 지방사, 지방사회사, 지방생활사, 지방예술사 등과 주객의 구분이 없이 혼연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지방 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총체적인 학문에서 문학이 소중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지방문학사 서술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³⁸⁾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문학사 접근은 문학사를 문화사적으로 바라

쭉.

37) 조동일, 같은 책, 206쪽.

38) 조동일, 같은 책, 207쪽.

보는 시각으로서, 문학연구가 문화연구로 떨어져내릴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한다. 현재 문학연구의 경향이 문화연구로 바뀌어져가고 있지만, 지역문학사를 기술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그 중심에 놓여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문학사냐 문화사냐는 언제나 긴장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일은 지역문학사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현지 조사와 공동연구라는 과제로 제시한다. 지방문학사는 문헌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하면서 써야 한다는 것이다. 현지에서 전하는 자료,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충분히 조사하고 다각도로 활용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입체화 한다³⁹⁾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헌자료와 현지조사 자료를 연결시키고, 서재작업과 현지 연구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은 현지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과 만나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실천은 연구의 기본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문학 연구가 소홀히 한 부분으로서, 지역문학 연구가 지닐 수 있는 강점이다. 그러나 지역문학 연구가 단순히 실증적 문헌연구나 역사전기적 연구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이를 토대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보편적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조동일이 제시하고 있는 지방문학사론은 이제 지역문학 연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단초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조동일의 『지방문학사』는 문학사 기술이란 측면에서 시도된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성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제 각 지역에서 선보이고 있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물들을 중심으로

39) 조동일, 같은 책, 209쪽.

현재의 지역문학연구의 현황을 파악해 본다. 그 대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삼아야 하나, 본고에서는 제주, 전남, 광주, 부산·경남 지역별로 논의하며, 가능한 한 저술과 논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문학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의 특수성(정체성)의 문제가 지역문학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제주지역

제주지역은 육지와 격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문학에 대한 인식이 이른 편이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대한 문학적 인식의 결과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제주지역에서 발간된 저술을 통해 제주지역문학연구의 현황을 파악해본다. 평론 차원이지만, 송상일은 『시대와 삶』(문장, 1979)을 통해 제주문학을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 송상일은 최현식, 김광협, 문충성, 오성찬, 현기영 등의 작가론을 보여주고 있지만, 평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본격 연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김영화의 『변방인의 세계 -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은 제주지역문학을 연구차원에서 접근한 최초의 저술로 본다⁴⁰⁾.

이 저서는 모두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제주문학의 특성」, 「제주문학 80년」, 2부는 「제주어와 문학」, 「설화의 현대화」, 「제주 역사와 문학」, 3부는 「일제시대의 제주문학」, 「문학과 이여도」, 「제주시조론」, 「제주소재 외지인의 문학」, 4,5부는 「양중해론」, 「강통원론」, 「한기팔론」, 「김대현론」, 「김광협론」, 「강금중론」, 「최현식론」 등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1994년까지 제주작가들에 의해 간행된 시집, 시조시집, 소설집, 장편소설, 희곡작품집, 평론집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제주문학의 특성이나 흐름 등이 다소 소략하게 처리되어버린 아쉬움이 있지만, 그 동안 이루어진 여러 자료의 발굴 성과를 연구의 차원으로 끌어

40) 김동운,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시와 비평』, 도서출판 불휘, 2004, 61쪽.

올려 제주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으며, 후속연구자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의미있는 저서⁴¹⁾로 평가한다.

김병택은 「현실과 역사를 보는 시각 - 문충성·현길언론」(『바벨탑의 언어』, 문학예술사, 1986)을 통해 제주지역문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부단히 제주지역문학 연구에 관심을 표명했다. 『현대시인론』(국학자료원, 1995)에서 그는 「지역문학의 존재방식과 그 전망」, 「변방의 자연과 삶 - 제주시인들의 시 세계」, 「체험의 의장」, 「삶 또는 비극적 정서」, 「노래하는 현대시론의 비평」등을 지역문학론으로 묶어내었다. 또한 『한국현대시론의 탐색과 비평』(제주대 출판부, 1999)에서는 「세월·문명·현실의 시적 의미 - 강통원론」, 「일상의 꿈 - 문충성론」, 「욕망과 무욕의 사이 - 김용길론」, 「자연의 시적 변용 - 양영길론」, 「불화의 시각 - 김석교론」, 「자연·역사·현실의 삼중주 - 홍성운론」, 「자연·일상의 존재방식과 극복 - 김영홍론」, 「역사적 진실과 시적 진실(4·3시선집론)」, 「제주시인들의 시 세계 (1,2)」 등을 통해 제주 시인들의 작품세계를 폭넓게 평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문학과 풍토』(새미, 2002)에서 「근대성 담론과 제주문학의 근대성」, 「지역문학의 현실과 미래」, 「4·3소설의 유형과 전개」, 「4·3회곡 또는 장르 설정의 당위성」, 「폭풍의 바다에 나타난 인물들의 갈등과 해소」 등 소설, 희곡, 수필 등의 다양한 장르에서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제주지역문학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제주 현대문학사』(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를 펴냈다.

그는 여기에서 지역문학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문학으로 규정하면서⁴²⁾,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의 제주현대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다.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하고 이를 사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문학사의 앞으로의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기초를 마련

41) 김동윤, 같은 글, 같은 쪽.

42)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22 쪽

한 셈이다. 그러나 시대구분에 있어서, 적절한 잣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10년대 단위로 서술하고 있는 점이나, 소략한 작가론 중심으로 기술해놓은 문학사라서, 작가들이 지닌 작품의 의미망을 중심으로 문학사의 단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저자가 밝혀놓았듯이 이 문학사는 지역문학사의 하위개념으로 서술되었⁴³⁾기에, 이를 바탕으로 상위개념의 제주 지역문학사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지역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4·3이다 그래서 제주작가회의는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출판사각, 2004)이란 4·3과 관련된 논의들을 모은 평론선집을 펴내었다. 이 평론선집은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4·3문학을 총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글들이고, 2부는 4·3시에 대한 탐색이며, 3부는 4·3소설들을 다루고 있으며, 4부는 4·3을 다룬 평문과 희곡론으로 꾸며져⁴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미 발표된 글들의 모음이며, 다양한 논의 주체들의 글을 편의상 나누어 묶어놓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이러한 선집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4·3 연구가 김동윤의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이다. 이는 그가 펴낸 『4·3의 진실과 문학』의 후속판인데, 단평, 서평이 포함되어 있는 3,4부를 제외한 1,2부는 4·3문학 연구의 지평을 새롭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1부 <4·3 문학의 전개와 재현방식>에서 의미있는 논의는 「4·3문학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 「4·3의 기억과 소설적 재현의 방식」이다. 전자는 4·3의 기억이 어떤 모습의 대항담론으로 형상화해 나갔는지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전개를 4개의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시기는 비본질적, 추상적 형상화 단계(1948-1978), 둘째 시기는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1978-1987), 셋째 시기는 본격적 대항담론의 단계(1987 - 1999), 넷째 시기는 새로운 모색의 단계(2000-로⁴⁵⁾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구분은 앞

43) 김병택, 같은 책, 345쪽.

44) 제주작가회의 엮음,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출판사각, 2004, 6쪽.

45)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도서출판 각, 2006, 34 쪽

으로 제주문학사를 기술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참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시기구분의 잣대가 둘째 시기까지는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잣대가 되고, 그 이후 시기는 6월 항쟁과 4·3특별법 제정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되고 있어, 잣대가 문학작품으로 통일되지 못한 점은 극복의 대상이 된다.

「4·3의 기억과 소설적 재현의 방식」은 작가의 체험이 각기 다르고,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곽학송의 「집행인」, 현기영의 「순이삼촌」, 김석희의 「땅울림」작품을⁴⁶⁾ 분석하여, 이 작품들이 4·3을 각각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창작연대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작품들이 지니는 4·3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통시적으로 살핌으로써 4·3의 의미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본다.

2부 <4·3문학의 몇 가지 논리>는 북한시인 강승한의 「한나산」론과 이산하의 「한라산」론,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론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강승한의 「한나산」론은 1948년 9월 당시 북한의 관점에 따라 4·3을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통일운동으로 형상화하고⁴⁷⁾ 있는 점을, 이산하의 「한라산」은 반미와 이념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한⁴⁸⁾ 점을, 현기영의 「거룩한 생애」론은 이 작품을 장편인 거대서사로 풀어갔으면 하는⁴⁹⁾ 점을 각각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4·3을 다룬 좀더 다양한 시인, 작가론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제주지역은 4·3이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문학적 형상화가 많이 이루어져, 제주지역의 문학의 정체성 혹은 지역성은 4·3에 쉽게 수렴된다. 이는 제주의 지역성이 4·3만은 아니지만, 4·3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주지역문학 연

46) 김동윤, 같은 책, 66쪽.

47) 김동윤, 같은 책, 171쪽.

48) 김동윤, 같은 책, 194쪽.

49) 김동윤, 같은 책, 209쪽.

구는 소위 4·3문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학 연구의 한 모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 본다.

2. 전남·광주지역

전남 지역은 지역문학활동의 활발함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문학연구 차원의 저작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1997년에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간행한 『전남문학변천사』가 출간되었지만, 그 내용은 「각 장르별 전남문학 변천사」, 「문학동인 활동 변천사」, 「문학단체 활동 변천사」, 「문학인 인명 편람」 등으로 구성되어, 전남지역문학의 일차적 자료 수집과 정리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특히 전남지역문학의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각 장르별 전남문학 변천사」는 각 장르별 시인들의 대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선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한시문학 변천사」와 「가사 및 시조문학 변천사」 항목을 설정하여 현대 전남지역문학의 뿌리를 확인해보려는 의도는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변천사를 다루면서 지역문학사의 시대구분에 대한 자각없이 10년대 단위로 정리하는 기술방법⁵⁰⁾은 지역문학사에 대한 투철한 자각없이 이루어진 편의적인 발상의 결과이다.

전남 지역은 전남지역문학 전반에 걸친 특성 연구는 활발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작가연구는 있다. 『송기숙의 소설세계』(태학사, 2001)와 문순태의 소설세계를 다룬 『고향과 한의 미학』(태학사, 2005)이다. 『송기숙의 소설세계』는 2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는 송기숙 소설과 우리 민족 현실의 상관성 속에서 포착되는 그의 소설세계와 그것이 실현되는 담론

50) 각 장르별 전남문학 변천사에서 「한시 문학 변천사」와 「가사 및 시조문학 변천사」외의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아동문학, 문학동인 활동 등 모든 변천사가 10년 단위로 정리, 기술되고 있다. 전남 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전남문학변천사』, 도서출판 한림, 1997

특성들을 밝히는 글들이 실려있고, 2부는 소설가 송기숙과 삶의 문제를 엿볼 수 있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 실린 15편의 글이 송기숙 소설 세계를 해명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의 소설들을 민중문학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고, 광주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연구는 송지현·최현주의 「5월정신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 연구⁵¹⁾」, 임규찬의 「전투적 민중성과 오월의 정치학⁵²⁾」 정도이다. 지역문학 연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연구는 지역의 특수성이 너무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 즉 송기숙의 문학세계를 지역성에 토대를 두면서 민족문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연구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연구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지역문학 연구라는 차원의 기획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중 상당한 평가를 이미 받은 작가들을 지역문학 차원에서 논할 때는 늘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문순태의 소설세계를 다룬 『고향과 한의 미학⁵³⁾』 역시 지역문학 연구 차원에서 기획된 연구서는 아니다. 정년을 기념하여 묶여진 이 연구서는 이미 씌어진 문순태론을 모아 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이 저술에 묶여진 17편의 논의를 통해 그의 소설세계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소설이 전남지역문학과 어떤 관계성을 지니며, 전남지역문학의 지평을 어떻게 넓혀왔는지를 확인하기는 힘들다. 지역문학 연구는 단순히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의 시각으로 그 작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광주지역의 문학을 논할 때는 5·18의 역사적 사건의 문학적 형상화가 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광주지역문학의 연구는 5·18의 역사적 사건을 다룬 작품들을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80년대 이후 광주지역의 지역성은 5·18의 역사적 사건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

51) 임환모 엮음, 『송기숙의 소설세계』, 태학사 2001, 117-144 쪽

52) 임환모 엮음, 같은 책, 325-341쪽.

53) 여기에는 작가론 및 작품론 17편과 3인의 문순태를 말한다. 인간론, 그리고 3편의 대담이 실려 있다. 이은봉 외 엮음, 『고향과 한의 미학』, 태학사 2005.

이다.

그런데 5·18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항쟁 직후인 1980년대 초반의 억압체제하에서 주관적 반영률이 강한 '시' 장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1980년대 중반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의 출간을 시발점으로 항쟁 과정의 사실을 복원하여 전달하는 '보고문학' 작품들이 창작되었다. 그 후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홍희담의 「깃발」, 정도상의 「십오방 이야기」, 윤정모의 「밤길」 등 중·단편이 발표되다가 1990년대 후반 임철우의 『봄날』,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 문순태의 『그들의 새벽』 등이 창작되면서 비로소 5·18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소설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5·18 광주 민중항쟁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은 그리 균질하지 못했다. 5·18 광주 소재 문학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주제적 우위를 선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록·보고문학 등의 폄하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⁵⁴⁾. 이러한 논의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5·18문학에 대한 연구가 조영식의 「5·18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이다. 5·18의 역사적 사건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대표적인 시선집은 문병란·이영진편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⁵⁵⁾(인동, 1987)이며, 소설집은 『80년 5월 광주항쟁소설선집·일어서는 땅』⁵⁶⁾(인동, 1987)

54) 안혜련,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2, 262쪽

55) 이 시집은 80년대 이후 각 지면을 통해 발표된 작품들 가운데 80인의 204 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 시선집은 전체 5부로 편집되어 있는데, 1부는 광주 5월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드러낸 시편들, 2부는 열흘간의 항쟁과정의 참상과 희망의 순간들을 노래한 시편, 3부는 5월의 영령들이 묻힌 광주 망월동 묘역에 대한 시, 4부는 5월에 연류되어 옥사했거나 또는 그 정신을 부르짖으며 분신 자살한 열사들의 추모시, 5부는 5월 이후의 만족현실을 읊은 시편들이 나뉘어 제시되어 있다.

56) 이 소설집에는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박호제의 「다시 그 거리에 서면」, 윤정모의 「밤길」, 이영옥의 「남으로 가는 헬리콥터」, 김남일의 「망명의 끝」, 김중태의 「모당」, 임철우의 「봄날」, 「관광객들」, 한승원의 「당신들의 문도가네」, 김유택

인데, 이들 작품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5·18의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조영식은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시선집에 실린 시들 중 항쟁의 현장을 노래한 시편, 희생자와 열사에 대한 추모시, 민족운동사적 의미와 민족 현실에 대한 시편으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먼저 김남주의 「학살 2」, 박정열의 「피의 초파일」, 문병란의 「망령의 노래」 등을 통해 5·18의 비극적 현장을 재구성해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황지우의 「호명」, 김해화의 「5월묘 가는 길」, 송기원의 「솔바람」 등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김준테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용택의 「우리사랑 광주」, 고은의 「5월이 가면」 등을 통해 5·18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5월이라는 시간과 광주라는 공간과 민주 민족 통일이라는 이상적 이념은 대개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중대한 상징성을 갖추게 되는데, 이 상징성이 바로 80년대를 꿰뚫는 민족 민주운동의 이념적 바탕이자 민족 민중문학의 뿌리로 작용하였다⁵⁷⁾고 본다. 즉 5·18을 다룬 시들이 80년대 민중시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의 시선집에는 해당되나, 이후의 5·18을 다룬 시들에서는 어떠한 변모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과제로 남겨진 부분이다.

소설에서는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정도상의 「십오방 이야기」, 임철우의 「봄날」, 임철우의 장편소설 『봄날』 등을 다루고 있다. 전자 세 편은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억을 통한 후일담 형식으로 5·18의 편린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임철우의 장편 『봄날』은 5·18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소설의 형식을 빌린 기록이

의 「목부 이야기」, 정도상의 「십오방 이야기」, 홍희담의 「깃발」, 최운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57) 조영식, 「5·18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비평문학』 제13호, 한국비평문학회, 1999, 52쪽.

기는 하지만, 장편 『봄날』은 5·18문학의 큰 봉우리라⁵⁸⁾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조영식은 5·18을 형상화한 시와 소설이 보여주는 작품들의 모습은 현장의 역사적 사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거나, 구호나 격렬한 감정의 나열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술적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쉬운 문제점들⁵⁹⁾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5·18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나온 문학 작품들이 지니는 거리의 미확보에서 오는 한계라고 여겨진다.

조영식의 연구 이후에 나온 5·18문학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연구는 안혜련의 「5·18문학의 대안적 여성성 구현 양상 연구」이다. 이 연구는 송기숙의 장편소설 『오월의 미소』,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홍희담의 「깃발」 등을 대상으로 여성 민중들에 의해 구현되는 대안적 여성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 동안 5·18 문학에 대한 논의가 남성 중심의 거대서사로만 획일적으로 분석됨으로써 주변부적 존재인 여성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대안을⁶⁰⁾ 제시하고 있는 측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을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침묵/독백/망설임 등으로 주변화되었던 여성 언어의 가치와 장점을 충분히 활용한 서사기법으로⁶¹⁾ 독자들을 끌어들이므로써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소설적 특징은 5·18문학뿐만 아니라, 여성적 서사가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준 것⁶²⁾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송기숙의 『오월의 미소』는 남성들에 의한 파괴적 폭력성의 고발과 여성들에 의한 포용을 동시에 구현해 내고 있는⁶³⁾ 작품으로 해석한다. 즉 파괴와 포용이

58) 조영식, 같은 논문, 459쪽.

59) 조영식, 같은 논문, 460쪽.

60) 안혜련, 앞의 논문, 264쪽.

61) 안혜련, 같은 논문, 268쪽.

62) 안혜련, 같은 논문, 269쪽.

63) 안혜련, 같은 논문, 271쪽.

라는 양극을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잉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여성들은 가부장제로 표상되는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여성의 잠재적인 힘의 원천으로서 승화되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5·18문학의 성격은 죽임의 작용을 해체하는 살림의 역동성을 구현하는⁶⁴⁾ 것으로 본다. 그리고 홍희담의 「깃발」과 공선옥의 「목마른 계절」은 그간 여성만의 본성이라 불리워온 직관·모성·보육 등에 머무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닌, 이를 포함한 생명력·다양성·역동성·순환성까지 적극 실현하는 양상이라⁶⁵⁾고 평가한다. 즉 여성 주체들이 자매애를 통해 남성 중심의 체계를 해체하고 유토피아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여성성이 구현되고 있다⁶⁶⁾는 것이다.

이러한 5·18문학의 성격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에서의 해석은 5·18문학에 대한 남성 중심 시각의 편향성에 대한 반성 및 여성들의 실천적 담론의 필요성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18문학에 대한 일방적인 수용이나 지나친 폄하라는 이중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원에서 5·18문학의 성격을 논하고 있는 연구가 주인의 「5·18문학의 세 지평」이다. 이 논문은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 정찬의 『완전한 영혼』을 다루고 있는데, 문순태의 「일어서는 땅」은 광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와 여수 반란 사건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역사 속의 연장선상에 왜곡된 시간·공간성에 대한 전망의 모색을 80년 5월에 위치시키고 있다⁶⁷⁾고 평가한다.

64) 안혜련, 같은 논문, 위와 같은 편

65) 안혜련, 같은 논문, 273쪽.

66) 안혜련, 같은 논문, 276쪽.

67) 주인, 「5·18 문학의 세 지평」, 『어문론집』 31 집, 중앙어문학회 2003, 267 쪽

그리고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는 독자로 하여금 주술에 감염된 현실의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망각과 집단적인 기억상실 증으로부터 오월의 광주를 일상사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임을 확인시키고 있다⁶⁸⁾고 보았다. 또한 정찬의 『완전한 영혼』은 80년 오월의 끔찍함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파시즘적 욕망을 지니지 않은 식물적 존재로 사랑의 나무를 심고 가꾸어 나가는 길을 소설 속에서 제시하고 있다⁶⁹⁾고 해석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5·18문학에 대한 해석은 광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문학적 차원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나, 더 많은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5·18 관련 문학 전반에 걸쳐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5·18의 형상화가 아니라, 그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형상화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5·18문학 속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광주지역문학 연구는 5·18문학 연구에 대한 방향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3. 부산·경남지역

부산·경남 지역은 지리적으로 남단의 끝이라는 지형학적 특성 때문에, 중앙집권적 문화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들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그래서 문학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매체 형성에 힘을 쏟아왔으며⁷⁰⁾, 그 매체 정착과 함께 지역문학에 대한 연구도 뒤따랐다⁷¹⁾. 지

68) 주인, 같은 논문, 272쪽.

69) 주인, 같은 논문, 276쪽.

70)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황국명의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문예지를 특정한 장소에 근거한 지형학적 상상력의 산물로 보고, 그 현황과 특성을 문학 운동론적 관점에서 규명한 것이다. 부산지역 문예지의 현황과 특성을 해명함에 있어, 이 연구는

역문학 연구의 출발은 정리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선집 혹은 전집 형태로 묶어내는 일이다. 그 대표적인 작업의 하나가 1950년대에 활동한 고석규의 비평적 작업을 제대로 묶어내는 일이었다. 유고 평론집 『여백의 존재성』(지평, 1990)의 발간이 그것이다. 이 평론집의 발간 이후 곧 이어 그의 유고전집이⁷²⁾ 발간됨으로써 고석규에 대한 연구는 여러 논자들에게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석규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한 곳에 묶어 펴낸 것이 『고석규 문학의 재조명』(세종출판사, 2000)이다. 몇 십년 동안 묻혀있던 지역 비평가의 자료를 정리하여 복원시키는 작업은 지역문학연구가 일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문학 연구는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온당한 지역문학연구의 차원에 다가설 수 있다. 그것은 고석규의 비평을 비평일반론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부산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그의 비평이 지니는 의미를 끌어내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석규 비평 연구는 이 지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산, 경남지역문학 연구는 상당하다. 한정호 엮음으로

5-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나누고, 주요 문예지의 창간사와 발간사를 중심으로 지역문예지의 문학적 이념적 동기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 내용을 세분화하면, 첫째, 부산지역 문예지의 태동과 성장과정을 통해 문인들의 참여형태, 장르별 분포, 종별과 간별의 변화 등을 살피고, 둘째, 문학운동의 지향점, 운동조직의 성격과 후원제도의 관련, 대립적 공간의식과 기관지의 방향성, 행정단위별 매체 경쟁과 탈이념성을 주목하며, 셋째, 대표적인 문예지를 통해 부산지역 평단의 형성과 문화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 중심의 지역문학 연구는 지역문학의 존재방식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학의 토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 논총』37집, 한국문화회, 2004, 334쪽.

71) 『부산문학사』(부산문인협회, 1997), 강희근의 『경남문학의 흐름』(보고사, 2001) 등의 지역문학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들은 단편적으로 많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지역문학연구에 대한 방법적 고민이 심도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72) 고석규의 유고전집은 『여백의 존재성』, 『청동의 판』, 『청동일기』, 『실존주의』4권으로 1993년, 출판사 <책 읽는 사람>에서 나왔다

나온 『김상훈 시 연구』(세종출판사, 2003), 박태일 엮음 『김상훈 시 전집』(세종출판사, 2003), 박경수편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역락, 2004), 박경수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새미, 2004), 류종렬편 『이주홍의 일제강점기 문학연구⁷³⁾』(국학자료원, 2004), 한정호 엮음 『포백 김대봉 전집』(세종출판사, 2005), 박태일 엮음 『정진업 전집1, 시』(세종출판사, 2006)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문혀있는 지역문인들의 흩어진 작품들을 일차적으로 정리해냄으로써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가치있는 작업이지만, 이들의 작품세계를 지역성과 연관시켜 풀어내는 단계로까지는 나아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풀어가야 할 지역문학 연구의 과제이다.

단순한 원전의 정리 차원이 아니라, 경남지역 출신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격 연구서가 유재천의 편으로 나온 『경남의 시인들』(박이정, 2005)이다. 여기에는 경남 출신의 시인인 김달진, 유치환, 설창수, 김상훈, 김춘수, 천상병, 박재삼, 이형기, 이은상, 김상옥 등을 11명의 연구자들이 각각 다루고 있는데⁷⁴⁾, 개별 시인론을 함께 묶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지역의 시인 연구서로서는 일차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시인들의 연구를 경남의 지역성과 관련지어 논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 시인론을 함께 묶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서로서의 한계를 보인다. 이들 개별 시인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작품의 성격을 지역성과 연

73) 이 편저와 함께 류종렬은 이주홍 소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이주홍과 근대 문학』(외국어대학출판부, 2004)을 펴냄으로써,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이주홍의 소설세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도 이주홍 소설이 부산 지역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작가연구 선에 머물고 있다.

74) 이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덕룡의 「김달진론 -존재탐색의 여정을 중심으로」, 문덕수의 「청마의 시론」, 조동구의 「김용호론 -민족과 역사에 바치는 노래」, 강희근의 「설창수 시 연구」, 고봉준의 「김상훈 시 연구」, 이영섭의 「무의미시의 허(虛)와 실(實) -김춘수 시 연구」, 유재천의 「천상병론」, 정삼조의 「박재삼의 시세계」, 강외석의 「불꽃 속의 씨락눈 -이형기의 「절벽」론」, 심원섭의 「노산시조집의 사상과 구조」, 김경복의 「초정 김상옥 시조의 상상력 연구」 등이다.

관해서 풀어낼 때, 지역문학으로서 의미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 경남 지역성과 관련시켜 작품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는 조갑상의 『소설로 읽는 부산』⁷⁵⁾(경성대출판부, 1999), 이순욱의 「근대시와 낙동강」⁷⁶⁾, 황국명의 「낙동강과 김정한 소설의 지리적 상상력」⁷⁷⁾, 구모룡·김정하의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⁷⁸⁾, 박훈하의 「문학적 기록으로서의 1950년 ‘부산’과 기억의 현상학 - 시선의 역사와 지역의 탄생」⁷⁹⁾, 박은태의 「『소시민』에 나타난 ‘부산’의 도시 형

75) 이 저술은 본격 연구서로 보기는 힘들지만, 부산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찾아 작품 속에 나타나는 부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작품 속에 나타난 부산 공간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76) 이 연구는 낙동강을 장소 경험으로 형상화하였거나 낙동강을 시적 배경이나 상상력의 원천으로 삼은 낙동강 시 가운데 양우정과 김용호의 시를 대상으로 낙동강의 공간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작품의 의미를 지역의 공간과 관련해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성에서 멀지 않다고 본다. 낙동강을 작품공간으로 논의한 연구는 조갑상의 「한국전쟁과 낙동강의 소설화에 대한 연구」(동남어문학, 20집, 2005), 문선영의 「한국전쟁기 시와 낙동강」(동남어문학, 20집, 2005) 등이 있다. 이순욱, 「근대시와 낙동강」 『문학도시 2006, 3/4월호, 50쪽.

77) 이 연구는 김정한의 소설에 나타난 공간 중 낙동강과 연관이 있는 작품들이 지니는 공간의 의미를 소설의 지리적 상상력이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장소의 정체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작품 연구라는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의 한 방향성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황국명, 「낙동강과 김정한 소설의 지리적 상상력」, 『문학도시』2006, 3/4월호, 66쪽.

78) 이 연구는 김성식 시인의 시와 천금성 소설가의 소설작품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의 해양문학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부산의 지역적 정체성의 하나로 해양성을 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문학론은 부산지역문학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구모룡·김정하,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 『한국문학논총』37집, 2004, 421쪽.

79) 이 연구는 1950년대 부산 현실을 그리고 있는 「소시민」, 「요람기」 등을 통해 50년대라는 과거의 부산을 무엇이라 선불리 명명하기보다는 어떻게 명명되어 왔는가 하는, 부산이라는 대상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는 매개원리로서의 시선의 형식과 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작품 속에 나타난 장소성의 논의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미세한 접근이란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의 또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성 양상」⁸⁰⁾ 등은 지역문학 연구의 방향성 모색에 필요한 긍정적인 논의들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성에 토대한 지역문학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각 지역의 정체성(특수성)을 통한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론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지역문학연구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V. 남는 말

지금까지 이 글에서 밝혀보려고 한 것은 현재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을 통해 앞으로 지역문학 연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각 지역마다 지역문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저하게 지역의 정체성에 토대하여 지역문학연구 방법론이 활용된 지역문학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지역문학 연구와 부산·경남지역문학 연구현황의 점검을 통해 그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인천, 강원, 경기 등의 지역문학연구 현황에 대한 논의도 그 지역의 특성을 중심으로 고찰해 가야 할 남겨진 과제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출신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제⁸¹⁾가 유행처럼 번져나고 있고, 관련 기념관이나 문학관도 세워지고

80) 이 논문은 이호철의 소설 『소시민』을 통해 부산이란 도시가 다양한 지역들의 사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도시인으로 편입되어가는 궤적을 살피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전통과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부산이라는 공간 속에 녹아들면서 만들어 내는 이질적 다양성을 해명해볼 수 있는 접근으로서 부산의 정체성 파악을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박은테, 『『소시민』에 나타난 ‘부산’의 도시 형성 양상』, 『부산학 총서 2』, 신라대학교 부산학연구센터, 2004.

81) 전국 지역에 산재한 문학제만 해도, 김유정문학제, 효석문학제, 만해문학제, 정지용문학제, 오장환문학제, 홍명희문학제, 미당문학제, 혼불문학제, 영광문학제, 김달진문학제, 요산문학제, 이주홍문학제, 권환문학제 등 상당수에 이른다.

있다. 이러한 문학 관련행사들과 문학기반 시설의 확충은 지역문학의 활성화 나아가 지역문학 연구의 진작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그 문인의 작품세계를 논하는 세미나 자리도 마련되고 있어, 지역문학연구에 촉매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역문인을 기리는 세미나 자리에서 논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문인의 작품세계와 그 지역성을 연관시켜 본격적으로 논하는 논의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는 현재 지역문학 연구의 현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지역문학연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의 연구자가 지역의 시각으로, 작품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밝혀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 과제가 지역문학연구가 풀어가야 할 일차적인 몫이다.

주제어 : 지역문학연구, 지역문학론, 지역성, 제주지역문학, 전남지역문학, 부산·경남지역문학

참고문헌

- 강희근, 『경남문학의 흐름』, 보고서, 2001.
- 구모룡·김정하, 「부산지역 해양문학의 문화론」,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문학회, 2004, 379-427쪽.
- 김동윤, 『기억의 현장과 재현의 언어』, 도서출판 각, 2006. 181-234쪽.
- 김동윤, 「제주문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 『시와 비평』, 도서출판 불휘 2004.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출판부, 2005, 17-140쪽.
- 남송우, 하상일, 『고석규문학의 재조명』, 세종출판사, 2000.
- 부산문인협회편, 『부산문학사』, 소문출판인쇄사, 1997.
-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강점기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출판부, 2004.
- 박경수편, 『잊혀진 시인, 김병호의 시와 시세계』, 새미, 2004.
- 박경수 편, 『정노풍 문학의 재인식』, 역락 2004.
- 박은태, 「『소시민』에 나타난 ‘부산’의 도시 형성 양상」, 『부산학총서2』, 신라대학교 부산학 연구센터, 2004.
- 박태일, 『한국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거울, 2004, 15-32쪽.
- 박태일 엮음, 『정진업 전집 1 시』, 세종출판사, 2006.
- 박훈하, 「문화적 기록으로서의 1950년대 부산과 기억의 현상학 -시선의 역사와 지역의 탄생」, 『한국문학논총』 제40집, 한국문학회, 2005, 189-212 쪽.
- 성민엽, 「문학종합무크의 현황」, 『지성과 실천』, 문학과 지성사, 1985.
- 양영길, 『한국문학사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37-60 쪽
- 유재천외 『경남의 시인들』, 박이정, 2005.
- 이강은, 「지역문학론의 개념적 역설과 그 현실적 긴장」, 『실천문학』 1995년 겨울호

- 이순옥, 「근대시와 낙동강」, 『문학도시』 2006년 3/4월호, 2006, 49-62쪽.
- 이은봉의 엮음, 『고향과 한의 미학』, 태학사, 2005.
- 임환모 엮음, 『송기숙의 소설세계』, 태학사, 2001.
-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전남문학의 변천사』, 도서출판 한림, 1997.
- 제주작가회의 엮음,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진실』, 도서출판 각, 2004, 49-227쪽.
- 조갑상, 『소설로 읽는 부산』, 경성대출판부, 1999.
- 조동일, 『지방문학사』, 서울대출판부, 2003, 201-211쪽.
- 최원식, 「지방을 보는 눈」, 『실천문학』, 1995 겨울호.
- 한정호 엮음, 『김상훈 시연구』, 세종출판사, 2003.
- 한정호 엮음, 『포백 김대봉 전집』, 세종출판사, 2005.
- 황국명, 「낙동강과 김정한 소설의 지리적 상상력」, 『문학도시』 2006년 3/4월호, 2006, 63-79쪽.
- 황국명, 「부산지역 문예지의 지형학적 연구」, 『한국문학논총』 37집, 한국 문학회, 2004, 331-377쪽.

<Abstract>

The status and task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2)
- Focused on Jeju, Jeonnam, Pusan · Kyungnam
regions -

Nam, Song-Woo

The preliminary target of this study were writings about the regional literature which have been discussed and work about the regional literature which were treated in each region. Through these targets the study focused on how the discussion of regional literature reveals the identity of each region. The most critical theme of theory of regional literature is the realization of regionality and its specification

For each region, though its studies is being progressed, there are not so many regional literature study which utilized the method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thoroughly based on the distinctiveness of its own region. However, with regional literature study of Jeju and Pusan · Kyungnam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more regional specific literature study.

Until now, however, there is not the result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which can be the model of regional literature study. For the future regional literature study, there is yet more room for the discussion about the regional identification and on its basis, the distinctiveness of regional literature should be approached.

Key Words : regional literature study, theory of regional literature,
regionality, regional literature of Jeju, regional
literature of Jeonnam, regional literature of Pusan ·
Kyungnam

K C I